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관련 가정통신문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확산 일로의 양상을 보였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기세가 다소 안정세로 접어 들었습니다.

천안지역은 확진환자가 발생한 평택과 아산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나, 확진자나 의심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천안시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발생과 함께 "천안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대책본부"를 설치하였고, 유관기관과 핫라인을 개설하여,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접촉자 또는 의심자에 대한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를 즉각 실시하였고, 현재까지 확산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에서도 상황실을 설치하여 중동호흡기질환(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지원활동을 해 왔으며, 6월 22일(월) 현재 모든 학교가 휴업을 끝내고 정상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열이 있거나 관련 병원을 다녀온 학생과 교직원은 모두 자가 격리가 해제 되었으나, 심리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어,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중동호흡기질환(메르스) 격리자는 모두 우리의 가족이고 이웃입니다. 특히 격리자는 극심한 불안감과 답답함 속에서도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고통을 감내한 분들입니다. 이들을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회피하거나 배제하기 보다는 **따뜻한 시선과 온정으로 보살펴야 합니다.**

또한 의료진과 구급대원들은 중동호흡기질환(메르스)과 싸우고 있는 진정한 영웅들입니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24시간 맡은 바 임무를 다하고 있는 의료진과 보건소 직원들,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학교에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손씻기 등 개인위생교육과 교사내 방역을 계속적으로 실시중입니다. 가정에서도 개인위생 수칙을 지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2015년 6월 24일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 천 안 시 장